



KBO리그 외국인 타자 '약해진 존재감'

새내기 피렐라 독보적, 로맥·알테어 등 '구관이 명관'
NC 양의지 홈런·타점·장타율 1위... 구단 고민 깊어져

올해 프로야구 외국인 타자들의 실력이 예년만 못하다.

지난해 홈런·타점·장타율·득점 타이틀을 휩쓴 멜 로하스 주니어(전 kt wiz)가 일본프로야구로 떠난 뒤 이방인 타자들의 존재감이 약해졌다.

그간 외국인 타자들이 강세를 보인 홈런, 타점, 장타율 1위가 모두 양의지(NC 다이노스)라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양의지는 홈런 17개에 62타점, 장타율 0.664를 쳐 타이틀 획득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다.

23일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외국인 타자는 홈런 공동 2위(16개), 타점 2

위(55개)에 오른 호세 피렐라(삼성 라이온즈)다.

2020년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카프에서 뛰던 아시아 야구 경험한 피렐라는 KBO리그에 데뷔한 올해 타석과 주루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팀에 빨리 녹아들었다.

피렐라의 가세로 삼성은 날개를 달고 중간 순위 2위로 순항 중이다.

피렐라와 달리 KBO리그 입학 동기인 라이온 힐리(한화 이글스), 데이비드 프레이타스(전 키움 히어로즈)는 고전 중이거나 전혀 적응하지 못했다.

신규 외국인 선수 최고액인 100만 달러를 채운 힐리는 타율 0.256에 홈

런 6방, 32타점을 기록했다. 기대치에 아주 부족한 수치다.

키움은 홈런 2개에 14타점만 남긴 프레이타스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타자를 모색하고 있다.

로하스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조일로 알몬테(kt)는 강백호와 더불어 팀에서 가장 많은 홈런 7개를 치고 두 번째로 많은 36타점을 수확해 KBO리그 적응력을 높여가는 중이다.

'구관이 명관' 격으로 호세 페르난데스(두산 베어스), 에런 알테어(NC), 제이미로맥(SSG 랜더스) 등 한국 야구를 1년이라도 먼저 경험한 선수들이 꾸준한 성적을 낸다.

페르난데스는 최다 안타 4위(83개), 타점 공동 9위(43개)를 달린다. 한국에서 5년째 뛰는 로맥은 홈런 공동 2위(16개), 한국 2년 차 알테어는 홈런 공

동 5위(15개)에 각각 자리했다.

그러나 로베르토 라모스(LG 트윈스)는 허리 통증으로 재활 중이며 심각한 타격 부진에 빠진 프레스턴 터커(KIA 타이거즈)는 2군으로 내려갔다.

공격에서 크게 빛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디슨 마차도(롯데 자이언츠)는 공수에서 2년 연속 변함없는 기량으로 롯데 선발 라인업의 한 자리를 지킨다. 현재 여러 구단이 부진한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고자 물밑에서 분주히 움직인다.

다만, 눈독을 들인 선수를 최근 일본프로야구 구단에 빼앗긴 한 구단의 사례에서 보듯 '머니 게임'에선 KBO리그 구단이 일본 구단에 불리하다. 그렇다고 검증도 안 된 선수를 싣는 맛에 잡아 올 수도 없어 구단들의 고민이 깊다.



힘찬 헛스윙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애인절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샌프란시스코와 LA에인절스의 경기에 출전한 오타니가 헛스윙을 하고 있다. 이날 애인절스는 연장 13회 결전 끝에 3-9로 패배 했다. 연합뉴스



24일(한국시간) 유로2020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09번째 A매치 득점에 성공한 호날두. 연합뉴스

박 터진 유로2020... 사상 최다 골 '폭죽'

4경기 18골, 호날두 최다 득점

박 터지는 승부가 펼쳐진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조별리그 마지막 날, 진귀한 기록이 많이 나왔다.

24일(한국시간) E조와 F조 최종전 4경기를 끝으로 대회 조별리그가 끝났다. 이날 4경기에서 모두 18골이 터졌다. 유로 역사상 하루에 가장 많은 골이 나온 날로 기록됐다.

2-2 무승부로 끝난 F조 포르투갈과 프랑스의 경기에서 기록이 양산됐다.

'유로 최강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중심에 섰다.

페널티킥으로만 포르투갈의 2골을 다 넣은 호날두는 109번째 A매치 득

점을 올려 이 부문 역대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알리 다예이(이란·은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호날두는 월드컵과 유로에서 역대 최초로 개인 통산 20골을 넣는 기록도 썼다.

프랑스의 카림 벤제마의 골은 프랑스 대표팀 역사상 최고령 선수가 넣은 유로 멀티골로 기록됐다.

이날 폴란드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뮌헨)는 A매치 통산 69골을 넣었는데, 이번 대회 모든 선수의 A매치 총득점 수인 34골의 2배를 넘겼다.

이날 스웨덴의 에밀 포르스베리는 경기 킥오프 81초 만에 선제골을 넣었고 유로 역사상 두 번째로 이른 시간에 들어간 골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코리안 빅리거 승리 사냥 나선다

류현진 볼티모어전 7승 도전
김광현 피츠버그전 선발 등판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간과 장소만 바뀌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다시 만난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벌어지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은 등판 일정에 맞춰, 닷새를 쉬고서 마운드에 오른다. 볼티모어는 류현진이 시즌 6승을 수확했을 때 상대였다.

류현진은 21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프타운에서 열린 볼티모어전에서 7이닝 동안 3안타만 내주고 1실점 했다.

5월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 이후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한 류현진은 볼티모어를 상대로 시즌 7승 사냥에 나선다.

류현진의 시즌 성적은 6승 4패 평균자책점 3.25다.

볼티모어를 상대로는 개인 통산 4경기 2승 평균자책점 2.52로 강했다.

다만 류현진은 올해 6월부터 임시 홈구장으로 쓰는 세일런 필드에서는 2경기 1패 평균자책점 6.94로 부진했다.

지난해 세일런 필드에서의 성적은 5

경기 2승 평균자책점 2.10이었다.

류현진은 좋은 기억을 많이 쌓은 볼티모어를 상대로 2021년 세일런 필드 악몽도 떨쳐낼 수 있다. 6월 들어 류현진에게 고민을 안긴 '체인저업 제구'도 27일 볼티모어전의 관전 포인트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빅리그 데뷔전 상대였던 피츠버그 파이리츠를 만나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김광현은 26일 오전 9시 15분(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김광현은 지난해 피츠버그를 상대로 3경기에 등판해 1세이브 평균자책점 3.65를 올렸다.

2020년 7월 25일 피츠버그와의 개막전에서 김광현은 마무리 투수로 등판해 1이닝 동안 2안타를 내주고 2실점(1자책) 하며 진판 세이브를 거뒀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데뷔전이었다.

지난해 8월 28일 피츠버그전에서는 6이닝 3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고도 승리를 놓쳤고, 9월 20일에는 5⅓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고전했다.

2021년 자독한 불운에 시달리고 허리 통증으로 잠시 쉬기도 했지만, 김광현은 건강을 자신했다. 이번에는 긴 이닝 투구와 시즌 2승을 목표로 마운드에 선다. 연합뉴스

미국 농구 '드림팀' 올림픽 4연패 도전

대표팀 12명 평균 연봉 280억
듀랜트·리더드·미들턴 등 출격

올림픽 4연패에 도전하는 미국 남자 농구 국가대표 12명이 확정됐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24일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에 잭 라빈(시카고)과 제러미 그랜트(디트로이트)가 합류하면서 7월 도쿄 올림픽에 나갈 12명이 모두 정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리그 간판급 선수들인 르브론 제임스(LA 레이커스),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가 도쿄 올림픽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빠진 가운데 출전 의사를 밝혔던 제임스 하든(브루클린)이 햄스트링 부상을 이유로 제외됐다.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까지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 나가는 미국 남자 농구 '드림팀' 12명의 평균 연봉은

2469만2178 달러, 한국 돈으로 280억 6000만원에 이른다.

케빈 듀랜트(브루클린)가 4010만 8950 달러(약 455억8000만원)로 가장 많고, 크리스 미들턴(밀워키)이 3305만1724 달러로 그 다음이다.

12명 가운데 최저 연봉은 뱀 아데바요(마이애미)의 511만5492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는 58억원 정도다.

미국은 도쿄 올림픽에서 A조에 편성돼 7월 25일 프랑스, 28일 이란, 31일 예선 통과국과 차례로 맞붙는다.

미국 대표팀 사령탑은 NBA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이다.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을 '드림팀'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부터다.

당시 매직 존슨, 마이클 조던, 래리 버드, 칼 말론, 찰스 바클리, 패트릭 유잉 등 NBA의 '전설'들이 총출동한 미국은 크로아티아와 결승에서 117-85, 32점 차로 이긴 것이 가장 적은 점수 차의 승리였을 정도로 압도적 기량을 발휘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전 품목 전기안전인증 전 품목 IP54 방진방수인증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특허 제10-2078975호

침체된 하우스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광합성 촉진
균일한 생육 및 성장 촉진
하우스내 상/하부 온도편차 감소
여름철 고온피해 및 겨울철 냉해피해방지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셔터 별도판매
모터 별도판매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 www.팜그린텍.kr / www.fgtech.kr